

미나마타병 연구에 대한 스튜어트 홀의 이론적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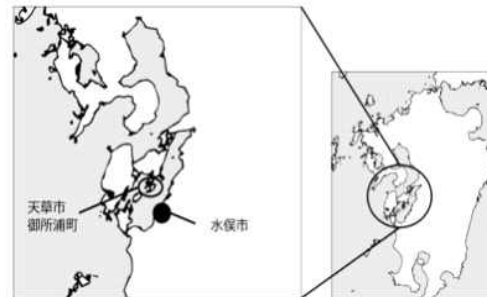
- 비본질주의적 사고로 파악하는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 -

이이지마 지카라 (규슈대학)

1. 들어가며

본 발표의 목적은 스튜어트 홀의 이론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비본질주의적 사고가 미나마타병 관련 연구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 1932~2014)은 자메이카 출신 비평가로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창설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홀의 많은 연구 중 미나마타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지만,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을 검토하는 데 있어 그의 비본질주의적인 사고는 유익한 분석 시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미나마타병 연구가 가해자/피해자의 명백한 대립구조를 강조하기 쉬운 때에, 이 대립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와 경험에 주목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홀이 쌓아 올린 비본질주의적 사고는 비결정적이며 복수의 요소로 인해 규정되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항’과 ‘계승’에 필연적으로 귀착되지 않는 형태로 미나마타병이 불러온 역사성과 현재성을 파악하는 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홀의 독자적인 이론적 시점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미나마타시에서 시라누이카이해를 끼고 약 13km 맞은편 해안에 있는 외딴 섬마을인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에 착목한다. 고쇼우라지마섬은 미나마타병 피해를 입은 한 지역으로 선행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미나마타와의 차이와 그 특이성이 충분히 논의되어오지 않았던 장소이다.



2. 홀의 비본질주의적 사고

홀의 이론적 특징 중 하나인 비본질주의적 사고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서 발전했다고 지적되고 있다(Morley 2019 : 9-10). 경제결정론이란 경제라는 사회의 토대가 법률,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와 같은 상부 구조를 인과적으로 결정한다는 논리이다. 홀은 이에 대해 경제라는 토대에 환원해서 사회라는 전체성을 설명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경제, 법률,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 등 각각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자립하여 사회가 중층적으로 결정된다고 파악했다(Hall 2019 : 163-170). 예를 들어 경제결정론적으로 말하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그 계급의 경제적 입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된다(노동자 계급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다는 뜻). 그러나 홀은 한 계급의 경제적 입장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결정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국면에서 그 밖의 이데올로기와도 새로이 절합(節合)될 가능성을 주장했다(Hall 2016 : 123). 다시 말해 홀은 경제라는 토대로 환원되는 경제결정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라는 한 전체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가 동일성으로 환원되는 경제결정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처음으로 ‘그렇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절합(節合)되어 사회가 규정되는가’라는 한 구체적인 정황(conjuncture)을 물은 것이다.

홀이 쌓아 올린 “보장 없는 마르크스주의”라는 비본질주의적인 방식”(Morley 209 : 6)이란 서로 다른 요소가 다른 그대로 존재하면서 전체를 복잡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2.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 경험

이상에 기반해 다음으로 이미 간행된 받아쓴 자료에 따라 고쇼우라지마섬 미나마타병 경험의 한 부분을 제시한다. 고쇼우라지마섬은 크고 작은 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고쇼우라마치를 구성하는 유인도 중 하나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에 속한다. 미나마타병은 유기수은으로 오염된 시라누이카이해의 어패류를 섭취하여 중독성 질환이 집단 발생한 일본 4대 공해 중 하나이며 원인 기업 치소(CHISSO)에 의한 배수의 영향은 이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 피해자 단체와 지원 조직이 발행한 기관지와 도서를 망라하여 읽고 고쇼우라지마섬 주민의 이야기를 선별한 결과 총 15명의 이야기를 추출할 수 있었다(쓰노다 1983; 하가 1985; 미나마타병 환자 연합 1998; 미나마타병 센터 소시샤 1994, 1995, 2002). 분석에서는 고쇼우라지마섬 주민을 유형화된 미나마타병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나마타(육지)와는 다른 형태로 미나마타병을 경험한 사람들로 보고 그 특이성에 주목하려 한다.

먼저, 섬 주민의 이야기를 검토한 결과, 미나마타와의 거리를 의식한 이야기가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고쇼우라지마섬의 어부였던 A 씨(1910년생)는 물고기와 고양이의 폐사(인체 오염에 선행한 미나마타병의 지표 현상)라는 심상치 않은 사태를 1950년대 후반부터 눈치채고 있었으나 미나마타병을 ‘먼 산 불구경 같은 느낌’(미나마타병 환자 연합 1998 : 150)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또한, 1960년대 무렵 미나마타에서는 미나마타병에 대한 우려로 생선이 소비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당시 고쇼우라지마섬에서는 미나마타병의 존재를 애초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보인다(미나마타병 소시샤 센터 1994 : 5). 마찬가지로 고쇼우라지마섬의 어부였던 B 씨(1936년생)는 1970년대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회상하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조업할 때면 반 정도는 미나마타에 갔었습니다. (중략) 미나마타병이란 건 몰랐죠. 물고기가 떠올라 있으면,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미나마타병 환자 연합 1998 : 161)

기록 영화 작가인 쓰치모토 노리아키는 고쇼우라지마섬을 포함한 아마쿠사시에서 미나마타병의 존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요인 중 하나로 정부와 현의 역학 조사가 1959년을 경계로 시라누이카이해 일대에서 미나마타만으로 축소된 점을 들었다(쓰치모토 1979 : 97-100). 조사 대상이 축소되기 이전에 실시되었던 역학 조사는 구마모토, 가고시마 두 현을 포함한 시라누이카이해를 하나의 해역으로 본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9년 후반부터 기업과 정부가 ‘미나마타병 숨기기’를 강력히 실행하게 되자 오염 조사 범위는 미나마타만(灣)으로 축소되고 시라누이카이해 전역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자의 눈은 미나마타에 고정되어 버린다. 다시 시라누이카이해 일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1년 이후이며 쓰치모토는 “최근 11년간 시라누이카이해의 사망자들과 관련해 누구도 그 원인을 미나마타병에서 끌어와서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쓰치모토 1979 : 100)라고 정부와 현의 역학조사를 둘러싼 동향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고쇼우라지마섬에서도 미나마타병 증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타났으나 인정 신청은 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자료에서 언급된 것이 고쇼우라지마섬에는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미나마타 이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고쇼우라지마섬의 어부인 C 씨(1941년생)는 고쇼우라지마섬의 오우라 지역에서

인정 신청이 나왔던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시 고쇼우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미나마타병 인정 신청을 하기 시작한) 오우라의 바보놈들은 무슨 생각인 거야’라고 나도 생각했었지.” (미나마타병 환자 연합 1998 : 173)

C 씨의 이야기에서는 고쇼우라지마섬에서 미나마타병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기간산업인 어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엿보인다. 그 후 고쇼우라지마섬에서는 구 마모토대학 지역의료연구회의 조사가 계기가 되어 미나마타병 환자 ‘발굴’이 활발해졌고 1972년에는 한 환자가 고쇼우라지마섬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미나마타병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미나마타병 인정신청환자 협회회의 노력도 있어 1978년까지 512명의 인정신청자가 고쇼우라지마섬에서 나오게 되었다(미나마타병 환자연합 1998 : 219).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고쇼우라지마섬에서는 “마을 사무소와 진료소 등 공적인 장소에서 미나마타병 이야기가 터부에 가까운 취급”(미나마타병환자연합 1998 : 143)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보인다. 예를 들어 미나마타병 운동에 종사해 왔던 C 씨는 미나마타병에 관한 마을 행정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다.

“미나마타병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 마을 홍보지에 미나마타병 공지? 주민들한테 신청 권고? 안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미나마타병 소시샤 센터 1995 : 4)

한편 90년대의 미나마타는 환경 모델 도시로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작했으며 모야이나 오시(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유대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도) 센터를 건설하는 등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 점을 고려하면 C 씨의 이야기는 미나마타와 고쇼우라지마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해의 역사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 경험 중 일부를 고찰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섬 주민들이 미나마타병을 인식하는 과정과 그 대응, 정부와 현에 의한 역학 조사의 역사와 그에 따른 경험, 행정이 공해의 역사에 대응하는 방식 등이 미나마타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미나마타병 관련 연구에의 공헌 가능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술해온 홀의 비본질주의적 시점과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 경험은 어떻게 절합(節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홀이 제창한 여러 개념의 직접적인 원용이 아니라 그의 독자적인 이론적 시점이 어떻게 고쇼우라지마섬에서의 미나마타병 경험에 주목할 때에 공헌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3.1 복수형 경험으로서의 미나마타병

첫 번째로, 홀의 비본질주의적 사고는 미나마타병 관련 연구에서도 한 구체적인 정황과 마주할 것을 요구한다. 미나마타병 관련 연구에서는 압도적으로 소수인 피해자를 위한 실태 파악에 중점이 두어진 면도 있어서 기업, 행정이라는 가해자/피해자의 대립 구조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연구는 분명 운동과 재판에서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했으나 정부와 기업의 대응 등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서 개별 사례가 ‘결정’되는 시점(본질주의적)에 의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홀의 비본질주의적 시점에서 파악한다면 보

다 중요한 것은 시라누이카이해 근해의 주민들이 그러한 전반적 상황을 경험한, 그 구체적인 방식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 전반적인 상황 내부에서 복수의 요소로 중층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시점(비본질주의적)에 서서 일반화된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이 아니라 복수형의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s)이라는 경험을 분석해 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본 발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 경험은 미나마타와의 지리적 거리와 기간산업인 어업 등 구체적 맥락간의 관계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미나마타병 피해를 입은 한 지역으로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쇼우라지마섬의 미나마타병 경험에서 ‘미나마타병 경험은 원래 더 복잡하다’라는 거시적 시점 같은 결론으로 귀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 내부에서 중층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고쇼우라지마섬의 특이성을 파악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석의 깊이를 더해감으로써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 혹은 그와 대립하는 거시적 시점 이 둘 중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복잡하면서도 전체성을 유지한 채 고쇼우라지마섬의 복수형의 미나마타병 경험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3.2 미나마타병 관련 경험의 비결정성

두 번째로, 홀의 비본질주의적 사고는 미나마타병과 관련된 경험이 비결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미나마타병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는 이제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미나마타병의 비극성과 피해자의 휴머니즘이 그려졌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계승이 제창되어 왔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나마타병 경험을 미래에 남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비본질주의적인 시점에서 경험을 파악한다면 미나마타병이라는 경험은 계승이라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필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상기에 기술한 것처럼 90년대에 고쇼우라지마섬에서는 미나마타병 이야기가 ‘터부’에 가까웠고 마을 행정은 환자 신청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고쇼우라지마섬의 어부들은 인류에 희생된 ‘어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1991년에 석제 어람관음상을 해변에 건립했다. 고쇼우라지마섬의 이러한 정황은 ‘계승’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미나마타병의 경험은 계승되는가’라는 새로운 절합(節合)을 향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홀의 비본질주의적 사고는 미나마타병의 계승과 관련해서 이러한 열린 시점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문헌

- 土本典昭 1979 『わが映画発見の旅』 筑摩書房
 角田豊子 1983 「天草の女」 『水俣の啓示 (下)』 色川大吉編 筑摩書房
 羽賀しげ子 1985 『不知火記』 新曜社
 水俣病患者連合 (編) 1998 『魚湧く海』 葦書房
 水俣病相思社センター 1994 「御所浦の海」 『ごんすい』 24号3-7頁; 1995 『ごんすい 特集: 御所浦島』 28号; 2002 『豊穡の浜辺から』
 Hall, Stuart 2019 “Rethinking the ‘Base and Superstructure’ Metaphor” In *Essential Essays, Volume 1*. D. Morley, ed. Duke University Press.; 2016 “Marxist Structuralism” In *Cultural Studies 1983*. J. Daryl Slack and L. Grossberg, eds. Duke University Press.
 Morley, David 2019 “General Introduction” In *Essential Essays Volume 2*. D. Morley, ed. Duke University Press.

(번역담당자:이지윤)